

행위모형에 의한 26개 비서구국가들의 성선호 유형*

이성용**

이 연구의 목적은 26개 국의 세계출산력 자료들을 이용하여 비서구사회에 (특히,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성선호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선호를 태도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내재하는 성선호 구조보다는 개인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쉽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존재하는 비서구사회에서 성선호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 제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된다. 각 나라에 내재하는 성선호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행위모형인 출산진도비모형이 각 나라의 성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출산진도비모형을 사용하여 26개 국의 세계출산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비서구국가들의 성선호 유형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남아선호, 2) 여아선호, 3) 동등선호, 4) 무선호. 동등선호는 최소한 한 명의 아들과 딸을 원하는 성선호이고, 무선호는 부모가 자식의 성에 무관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성선호이다. 행위모형에 따라 분류된 성선호 유형은 태도모형에 따라 분류된 성선호 유형과는 상당한 불일치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모형과 태도모형의 두 분석결과에서 한국과 네덜은 남아선호국으로 자마이카는 여아선호국으로 분류되었다.

* 이 글은 1995년 후기 한국인구학대회와 1995년 미국사회학대회,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인구학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후기 한국인구학대회에서 논평을 주신 김두섭 교수와 이상영 박사, 미국사회학대회에서 논평을 준 리에(Lye) 교수, 그리고 위스콘신-메디슨에서 이 글의 초안을 구성하게 하고 26개 국의 세계출산력자료를 구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 윈스바로우(Winsborough) 교수, 범페스(Bumpass) 교수, 마우엘(Marwell) 교수, 와커(Walker) 교수, 텍터(Dechter) 교수, 그리고 데 보스(De Vos)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 문제제기

부모가 한쪽 성의 자식을 다른 쪽 성의 자식보다 편애하는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인구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성선택 연구들은 (특히 인구학과 관련된) 성선택과 자녀수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족계획과 관련된 정책수행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Arnold, 1985; Cleland Verrall and Vaessen, 1983; Das, 1987; Repetto, 1972). 하지만 최근의 성선택 연구들은 불균형적으로 높은 출생아들의 성비(Coale and Banister, 1994; Lee, 1993; Park and Cho, 1995; Zeng Yi et al., 1993)와 남아보다 비이상적으로 높은 여아사망률(Das Gupta, 1987; De Souza and Chen, 1980; Langford and Storey, 1993)과 같은 사회문제에 연관시켜 분석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출생 전 또는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차별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낮은 지위(Cain, 1993; Mason, 1993)를 지칭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며, “여성의 적으로 간주되는 문화”(Miller, 1981: 15)인 가부장제의 산물로 평가되어 왔다. 많은 사회인구학자들(Cain, 1981, 1993; Nugent, 1985; Mason, 1993)은 가부장제도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늙거나 병들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딸보다는 아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아마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관심 때문에 성선택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 또는 경험적 연구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가부장제도로 간주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남아선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다(Arnold, 1985; Arnold and Kuo, 1986; Coombs and Sun, 1978; Das, 1987; Leung, 1988; Nag, 1991; Pong, 1994; Rahman and Da Vanzo, 1993). 어쨌든 이러한 연구추세로 말미암아 성선택은 남아선호와 동일시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또한 남아선호의 이론을 성선택의 이론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띤다. 이와 같은 이론적 경향으로 성(남아)선호와 관련된 원인을 주로 가부장제도와 사회적 성차별제도에서 찾곤 했다. 이러한 이론에서 볼 때, 아들선호의 강도는 직접적으로 가부장제도의 수준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변한다. 즉 가부장제도·성차별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남아)선호는 강해진다(Cain, 1993).

그러나 가부장제에서 발생하는 주된 특성 중 하나인 성차별로서 성선택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경험적 연구들은 일시적 연속성¹⁾을 인과관계로 혼동하는(post hoc) 커다란 이론적 약점을 가진다(Friedman, Hechter and Kanazawa, 1994). 그런가 하면 남아선택이 아닌 여아선택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자, 필자는 이미 성선택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interests)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식을 포함한 친족을 이용하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가족생존전략'(family survival strategy)에 따라 생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Lee, 1995a). 한편, 세상에는 남아선택 외에 다른 형태의 성선택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남아선택사상을 잉태하지 않는 가부장제도나 혹은 모계가족제도와 같은 여러 형태의 가족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간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성선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비서구국가들의 성선택은 개인들의 태도가 아닌 사회적 규범(Arnold, 1985) 또는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성선택을 개인들의 태도들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들의 태도와 실제행위의 차이점을 설명할 사회구조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개인들의 행위는 개인 자신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므로(Coleman, 1990), 각 나라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차원의 성선택은 태도모형이 아닌 행위모형으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행위모형을 사용하여 26개 국가의 성선택을 측정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선택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2. 성선택의 측정

출산력과 관련된 맥락에서 성선택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태도측정과 행위측정이다. 태도측정은 태어날 아이의 원하는 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 근거하거나(Cleland, Verrall and Vaessen, 1983), 또는 이상적인 자녀수에서 이

1) 성선택국의 성차별과 성선택은 둘 다 그 나라에서의 가족 삶의 전략으로 발생한 것이다(Lee, 1995a). 따라서, 성차별이 성선택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성선택과 성차별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말하는 진술로 바뀌어야 한다.

상적인 자녀들의 성의 구성에 대한 서열을 표시하는 콤스(Coombs)의 I척도(Coombs, Coombs and McClelland, 1975; Coombs and Sun, 1978; Coombs, 1979)가 주로 사용된다. 다음에 태어날 아이의 원하는 성에 대한 단답형의 질문은 기대자녀수에 대한 선호와 성선호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서 연구하게 된다면 이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와 성선호의 관계를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아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위에 대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연구가 된다(De Tray, 1984; Cronk, 1991). 실제로는 자녀수 선호가 성선호보다 출산행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Coombs and Sun, 1978). 결과적으로, 성선호 측정모델에서 성선호의 측정은 반드시 자녀수 선호의 측정과 구분되어야만 한다. 콤스의 I척도에서 IN(자녀수선호척도)과 IS(성선호척도)는 수와 성에 대한 선호들의 독립적인 측정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로 분리되어 분석된다(Coombs, Coombs and McClelland, 1975).

일반적으로, 콤스의 I척도는 “집단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의 성선호”(Coombs and Sun, 1978: 56)를 측정하는 데 적당하다. 즉 관심 있는 성선호가 개인차원이 아닌 가족 또는 친족 제도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태도 모형들은 타당하지 못한 성선호의 측정모형이 될 수 있다. 특히, 몇몇 비서구사회에서는 가문계승자로서 자식의 중요성은 단지 그를 낳은 친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Lee, 1995a). 남아선호국가인 동아시아 국가에서 아들의 존재는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선호는 개인들 각자의 성선호에 관한 태도에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을 경우에, 또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결정은 오직 부모(특히 어머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들 없는 여자는 그녀의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 또는 가까운 친지에게까지 아들을 낳아야만 된다는 상당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계속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선호를 측정하는 태도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내재된 성선호의 구조(underlying gender preference structure) 대신 개인이 진술하는 성선호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비서구국가들에서는 출산행위에 대한 성선호의 영향은 부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 의해서도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행위모형은 태도모형과는 달리 각 사회의 성선호의 존재, 즉 내재된 성선호의 구조를 더 반영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행위모형들 중에서 출산행위에 대한 성선회의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출산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에 의한 통계모형이다(예를 들면, Das, 1987; De Tray, 1984; Park, 1983). 출산진도비는 j 번째 출산이 일어났을 때 $j+1$ 번째 출산을 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이 방법의 기본 가정은 만약 성선회가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존 자녀의 성구조에 불만족해 하는 부모가 만족스러운 자녀의 성구조를 가진 부모보다 다음 아이를 가질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태도조사와 마찬가지로, 출산진도비모형도 역시 여러 가지 논리적 그리고 통계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모집단이 비교적 동질적인(homogeneous) 성선회를 가지지 않는 사회일 때 일어난다. 집합자료(aggregate data)를 근거로 산출한 출산진도비모형은 하위모집단의 성선회에 대한 이질성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선회의 존재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평가절하(underestimate)하기 쉽다(McClelland 1979, 1983). 한편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하는 비서구사회에서조차도, 부모들은 최소한 한 명의 딸을 원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Nag, 1991; Rahman and Da Vanzo, 1993).

두 번째 문제점은, 태도모형과 마찬가지로 행위모형에서도 자녀수에 대한 선회는 성선회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각 출산진도마다 다른 기대자녀수를 가질 것이다. 기대자녀수가 많을 때에는 부모들이 강한 성선회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출산행위는 처음의 첫째, 둘째, 또는 셋째 자식들의 성구조에서부터 거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Ben-Porath and Welch, 1976). 게다가, 여자들이 출산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만족스러운 자식의 수와 성구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행위모형에서 수선회와는 독립된 성선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선회모형에서 수선회와 관련된 변수가 통제되어야 하고, 또한 응답자들은 그들의 출산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라만과 다반조(Rahman and Da Vanzo,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집단(예를 들면, 피임약의 사용이 보편적인 집단)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집단보다는 더 명확한 성선회의 증거를 보인다고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모집단이 태어날 아이의 성에 대한 확률의 부정확한 주관적 인식 때문에 다음 아이에 대한 공통된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McClelland, 1979; 1983). 예를 들어 한 명의 아들을 원하지만 내리 세 명의 딸만 낳은 여자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네 번째 아이의 성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다른 확률을 가지기

쉽다. 어떤 유형의 어머니는 딸을 내리 세 명을 낳은 유전적 체질 때문에 네 번째 아이도 딸일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네 번째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유형의 어머니는 이미 내리 딸만 세 명을 낳았기 때문에 네 번째 아이는 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네 번째 아이를 가질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네 번째 아이가 아들이거나 딸일 확률은 반반이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심리적 확률을 가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은 성선택의 존재가 부모의 소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사회구조(또는 사회규범)로부터 기인될 때에는 다음 아이의 출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rnold, 1985).

출산진도비모형의 네 번째 문제점은 불만족스러운 생존자식의 성구조로 인하여 관찰된 기간내에서는 자식을 가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자식을 가질 응답자들을, 즉 오른쪽 기준시점에서 잘린 응답자들(right censored observations)을 성선택을 측정하는 변수(여기서는 생존자식의 성구조)에 대한 추정치의 계산에서 고려할 수 없어 어긋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별 자료(individual data)를 사용한 출산진도비 통계모형으로써 성선택을 측정할 때는 네 번째 문제점을 제외한 위의 세 가지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위험률모형(hazard model)을 사용하면 추정치 계산에서 오른쪽 기준시점에서 잘린 관찰자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험률모형을 사용하면 출산진도비모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서구사회의 성선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방법으로서 출산진도비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성선택을 분석하기 위한 26개 국의 선정

27개 국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 자료들로부터, 다음 아이의 원하는 성에 대한 질문 항목(“당신은 다음(또는 첫 번째) 아이로 아들 혹은 딸을 원하십니까?”)의 응답에 기초하여 크릴랜드와 그의 동료들(Cleland, Verrall and Vassen, 1983)은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7개 국을 4가지의 다른 성선택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7개 국 중 6개 국은 강한 남아선호국가로(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 시리아, 요르단), 8개 국은 보통 남아선호국가로(레소소, 스리

랑카, 수단, 타일랜드, 피지, 말레이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11개 국은 동등선희국가로(케냐, 인도네시아, 페루, 구아니아, 트린다드와 토바고, 콜롬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필리핀, 하이티), 그리고 2개 국은 여아선희국가로(자마이카, 베네수엘라)로 분류되었다. 지리적으로 보다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은 대체로 남아선희를,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통 남아선희나 동등선희를,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은 보통 남아선희, 동등선희, 여아선희 등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리학적 결과는 성선희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할 나라들이 각 대륙으로부터 골고루 선정된다면 좀더 다양한 성선희의 분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크릴랜드와 그의 동료들은 아프리카에서 3개 국만을 분석하였는데,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정되어 분석된다면 또 다른 아프리카의 성선희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고유한 가족생존전략에 따라 아들과 딸의 가치가 다르게 주어진다고 할 때, 부모는 높은 가치를 가진 성의 자식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Lee, 1995a).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제가 아닌 모계사회이므로(Goody, 1976), 이러한 사회에서는 딸의 가치가 아들의 가치보다 높아 여아선희사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표1〉 단답형 태도모형에 의해 측정된 성선희 유형

강한 남아선희국	보통 남아선희국	동등선희국	여아선희국	
파키스탄	4.9	레소소 1.5	케냐 1.1	베네수엘라 0.8
네팔	4.0	스리랑카 1.5	인도네시아 1.1	자마이카 0.7
방글라데시	3.3	수단 1.5	페루 1.1	
한국	3.3	타일랜드 1.4	구아나 1.1	
시리아	2.3	피지 1.3	트린다드와 토바고 1.1	
요르단	1.9	말레이시아 1.2	콜롬비아 1.0	
		도미니카 1.2	파라과이 1.0	
		멕시코 1.2	코스타리카 1.0	
			파나마 1.0	
			필리핀 0.9	
			하이티 0.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답형의 성선택에 관한 태도측정은 응답자들(특히, 결혼한 여자)의 성선택을 나타낼 뿐, 내재하는 성선택의 구조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성선택에 대한 태도측정의 근본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태도측정들은 행위측정과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게 된다(Cronk, 1991; De Tray, 1984). 예를 들면, <표 1>에서 케냐는 동등선택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민속방법론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의 행위분석을 한 크론의 연구(Cronk, 1991)에 따르면, 케냐의 농촌 부모들이 아들보다 딸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며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케냐 농촌에 내재하는 성선택은 동등선택이나 남아선택이 아닌 여아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크론의 주장이 갖는 근본적 문제점은 과연 그가 조사한 농촌 부락이 케냐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크릴랜드와 그의 동료들은 4가지 성선택 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한 아들·딸의 비(ratio) 계산에서 결값(missing value)의 처리에 대한 커다란 실수를 하였다. 아들·딸 비 계산에서 그들은 성선택에 대한 질문 항목에 명확한 대답을 한 응답자들만을 사용하였다. 즉,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아들·딸 비 계산에서 빼버렸던 것이다. 만약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 자식의 성에 대해 진실로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르겠다”란 범주에 대답한 그들의 응답들은 그들의 진실한 성선택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chuman and Presser, 1981). 따라서 그러한 응답자들이 빠진 상태에서의 아들·딸 비 계산은 특히 불명확한 대답을 한 퍼센트가 높은 나라들의 성선택에 대한 잘못된 추정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성선택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한 태도모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는 여기서 행위모형을 사용해 보려고 한다. 불행히도,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행위모형에 기반하여 비서구사회 성선택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비서구사회 성선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26개 국의 세계출산력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로는 베닌, 카메룬, 가나, 케냐, 레소쑤,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수단 등이 선정되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피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로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하이티, 자마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린다드와 토바고, 베네수엘라 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행위모델에 따른 26개 국의 성선택 분석으로서 비서구국가들의 성선택 분포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성선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데 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소한 남아선호가 대표적인 성선호가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의 성선호 형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태도모형과 행위모형이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성선호의 내재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평가할 연구들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4. 출산진도비에 의한 통계학적 모델

출산진도비를 사용한 성선호 측정모형에서 분석되는 것은 생존자식에 대해 다른 성구조를 가진 어머니들의 다른 출산진도비이다. 종속변수는 j 번째 출산을 한 여자들이 $(j+1)$ 번째 출산을 하는가 안 하는가이고, 주독립변수는 생존아이의 성구조이다. 이 모델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log (P_i/1-P_i)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P_i 는 j 번째 출산을 한 i 번째 여자가 $(j+1)$ 번째 출산을 할 확률이다. X_1 은 주독립 변수로서 j 번째 출산까지 생존자식의 성구조를 말하고, X_2, X_3, X_4, X_5 는 각각 통제 변수들로서 실제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차이, 거주지역, 응답자의 교육수준, 조사 당시의 응답자의 나이 등이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을 행위모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각 모집단의 성선호를 가리키는 주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한 이질성 (heterogeneity)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주독립변수인 생존자식의 성구조는 3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1) 아들만 가진 집단, 2) 아들과 딸을 가진 집단, 3) 딸만 가진 집단.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성선호에 대한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유형의 남아선호국은 강한 남아선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명의 딸을 원하고 있으며 (Nag, 1991; Rahman and Da Vanzo, 1993), 또 다른 유형의 남아선호국가에는 오직 아들의 존재에만 관심이 있다(Lee, 1993).²⁾ 아들을 가진 집단이 아들이 없는 집단보다 낮은 출산력을 보이

2) 1974년 세계출산력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한 위험률모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한국인은 계속하여 6명의 딸을 가질 때까지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을 가지고 싶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Lee, 1993).

는 경우는 남아선호 사회의 지표로 간주되고, 반대로 딸이 없는 집단이 딸이 있는 집단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이면 여아선호 사회의 지표로 간주된다. 만약 아들만 또는 딸만 가진 집단들이 아들과 딸을 함께 가진 집단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인다면, 이는 부모가 최소한 아들과 딸 한 명씩을 원하는 지표로 간주되므로, 필자는 이러한 성선호를 동등선호사회로 칭한다. 또한 자식의 성구조가 부모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를 무선호사회라 부르겠다.

가장 중요한 통제변수는 실제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차이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원하는 아이의 수는 변할 수가 있다. 만약 원하는 아이가 상당히 많으면, 강한 성선호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첫째, 둘째, 또는 셋째 아이까지의 성구조는 출산행위에 대해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Ben-Porath and Welch, 1976). 따라서 출산행위모형에서는 성선호가 수선호로부터 독립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수선호를 통제하기 위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었다. 실제자녀수가 기대자녀수(desired number of children)보다 작은 경우(아이를 더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로 부호화하고, 실제자녀수가 기대자녀수와 같거나 많은 경우(즉,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그리고 성선호에 대한 개인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교육, 출생코호트, 거주지 등 세 가지 통제변수를 통제모형에 더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미시) 차원에서 성선호의 이질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통제되었지만, 그러나 성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거시) 차원의 변수들이 아직 통제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 고려된 거시차원의 변수는 피임사용에 대한 보급률(prevalence rate)이다(Rahman and Da Vanzo, 1993). 성선호로부터 자녀수 선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그들의 출산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두 여자가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수와 성구조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피임도구의 획득이 자유로운 사회의 여자에게 비하여, 피임도구의 획득이 매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

성선호를 측정하는 통제모형에 출생순위와 생존자식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을 가진 부모에 대한 출산행위에는 자녀의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들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는 계속하여 6명의 딸을 가질 때까지 자녀의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에서는 성선호가 수선호보다 출산행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를 또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산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집단이 통제능력이 없는 모집단보다 출산행위에 기반한 성선호 측정모형에서 더 명쾌한 성선호를 나타낼 것이다.

1960년대 초가 되어서야 대부분의 비서구국가들은 피임약, 정관수술, 자궁내 삽입장치(IUD)와 같은 피임도구의 보급으로 출산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피임도구의 보급은 비서구국가의 급격한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정책에 따라 후원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세계출산력 조사자료들의 조사기간은 1974년부터 1983년까지이다. 각 나라가 가족계획정책을 시작한 시기가 다르므로, 출산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피임도구에 대한 소개와 보급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더구나 같은 연도에 가족계획정책을 시작한 나라들도, 그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피임도구에 대한 보급률은 매우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 대중통신이 발달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피임도구의 보급률과 유행성은 빠를 수 있다(Freedman, 1979). 그렇지만, 우리는 비서구사회의 여자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그들의 출산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므로, 1960년대 초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부모의 의도를 더 반영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모의 성선호와 이에 관련된 출산행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피임사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표본을 둘째 아이가 각 나라의 출산력조사가 실시된 해로부터 10년 전 안에 태어난 여자들로 국한시켰다. 예를 들면, 조사 연도가 1974년인 나라에서는 둘째 아이가 1966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응답자들로 표본을 국한시켰다. 이렇게 표본을 국한시킴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출산행위에서 시기별에 따른 다른 영향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가족계획정책 실시 전과 후의 출산행위에 다르게 미치는 시기별(또는 거시적) 영향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성선호가 부모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좀더 명쾌하게 미치는 시기로 국한하여 통계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본을 국한시켜 생기는 또 다른 장점은 '표본추출 어긋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indfuss, Palmore and Bumpass, 1982). 세계출산력 조사는 회고적 연구설계방식(retrospective study design)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과 어린 나이에 자식을 가진 여자들이 더 많은 비율로 표본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출산순위(parity)가 높아짐에 따라, 젊은 여자들의 구성비는 늙은 여자들의 구성비

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결혼을 일찍 하여 첫째와 둘째 아이를 빨리 가진 여자들의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각한 '표본추출 어긋남'은 성선호를 측정하는 높은 출생순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표본추출 어긋남은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출산에만 국한시켜 분석한다면 크게 줄일 수가 있다. 한편, 쌍둥이를 통계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성선호를 나타내는 생존자식의 성구조에 대한 회귀계수의 계산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쌍둥이를 가진 응답자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5. 경험적 결과

26개 국 성선호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2>(34쪽 참조)에 나타나 있다. 생존자녀의 성구조에 대한 추정치에 기반하여, 나는 <표3>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성선호 유형을 구성했다. <표3>에서 보여주는 행위모형의 결과는 <표1>의 태도모형의 결과와 크게 불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두 표들은 비서구사회의 성선호 유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종류의 네 가지 성선호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표1>은 강한 남아선호, 보통 남아선호, 동등선호, 여아선호 등의 네 가지 성선호 유형을, 그리고 <표3>은 남아선호, 여아선호, 동등선호, 무성선호 등의 네 가지 성선호 유형을 사용하여 비서구사회의 성선호 유형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표1>과 <표3>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동등선호에 대한 다른 정의이다. <표1>에서 동등선호는 아들을 원하는 백분비와 딸을 원하는 백분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0은 아들을 원하는 응답자들(즉, 50%)과 딸을 원하는 응답자들(즉, 50%)의 비가 1.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표3>에서 동등선호는 응답자가 최소한 아들과 딸 한 명씩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표1>에서 동등선호를 분류하는 기준점은 애매모호하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는 보통 남아선호로, 1.1은 동등선호로 분류되었는데, 그 기준점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성선호 유형의 기준점에 대한 애매모호함은 통계분석에서 결값의 처리와 연관될 때 더 심해진다. 다음에 가질 자녀에 대해 원하는 성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여자들은 성선호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존

자식의 성구조는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다음 자식의 원하는 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는 응답자를 각 나라의 성선희 유형의 계산에서 빠뜨린다는 것은 각 나라의 성선희를 잘못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남아선호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서 부모들은 그들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명의 딸을 원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Nag, 1991, Rahman and Da Vanzo, 1993). 성선희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경험적 증거는 <표1>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 태도측정모형으로서는 제공될 수 없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행위측정모형으로는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³⁾ 그리고 부모들이 최소한 아들과 딸을 한 명씩 원하는 사회를 남아선호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타당한 분류로 생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를 필자는 남아선호국으로 칭하는 대신에 오히려 동등선호국으로 칭해야 한다고 본다. 26개국 중 대표적인 동등선호국은 파키스탄이다.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인들은 세 번째 출산순위에서 아들만 있는 집단과 딸만 있는 집단은 아들과 딸 모두 있는 집단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파키스탄 부모들이 최소한 아들과 딸 한 명씩을 원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⁴⁾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도 이 글에서는 동등선호국가들로 분류되었지만, 파키스탄과 같이 전형적인 동등선호국은 아니다.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출산순

3) 대부분의 성선희 연구들은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집단을 비교하는 대신에 아들이 있는 여자의 출산력과 아들이 없는 여자의 출산력만을 비교함으로써 남아선호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최소한 한 명의 딸을 원하는 남아선호국과 오직 아들만을 원하는 남아선호국은 구분될 수 없고, 또한 여아선호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

4) 디 트라이(De Tray, 1984)는 파키스탄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자식의 성구조와 태어난 자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식의 성구조는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출산행위에 대한 생존자식의 성구조의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변한다. 세 번째 출산순위에서는 최소한의 한 명의 아들과 딸을 원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그리고 네 번째 출산순위에서는 4명의 아들만 가진 여자들이 4명의 딸만 가진 여자들보다 더 높은 출산력을 보여주었다(10% 수준). 특히 네 번째 출산순위의 결과는 파키스탄을 남아선호국으로 분류한 행위모형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인구보건조사(Demographic Health Survey)와 같은 최근의 사회조사 자료와 좀더 세련된 고급통계로서 파키스탄의 성선희를 측정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위에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경우에는 아들과 딸을 모두 가진 부모들이 딸만 가진 부모들과는 유의미한 출산력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만 가진 부모보다는 유의미하게 네 번째 아이를 덜 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세 번째 출산순위에서 아들과 딸을 모두 가진 부모들이 아들만 가진 부모들과는 유의미한 출산력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딸만 가진 부모보다는 유의미하게 네 번째 아이를 덜 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약한 여아선호를 가진 동등선호국이며, 베네수엘라는 약한 남아선호를 지닌 동등선호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표1>에서 베네수엘라는 여아선호국으로 분류되어, 태도모형과 행위모형에 따른 분석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1>의 비(ratio) 계산에서 명확히 자식의 성을 제시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빠졌다. 사실상,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태어날 자식의 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들’ 혹은 ‘딸’이라는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상당히 높은 백분비의 응답자들이 명확한 진술 대신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성선호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크릴랜드 등의 분석에는 이러한 무성선호의 사회의 존재를 간과한 커다란 문제점이 따른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6개 국 중 15개 국이 무성선호국으로 간주된다. 즉 비서구사회 중 3분의 2는 성선호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이다. 무성선호국(특히 아프리카국가들)의 높은 출산율은 성선호 대신 자식의 수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는 암시해 준다.

무성선호국의 경우에는 아들의 가치와 딸의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되어 부모들은 태어날 자식의 성에 무관심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한 명의 아들과 딸을 원하는 동등사회에서는 아들과 딸에 부여되는 그들의 고유한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성선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성선호가 거의 무시된 채 연구되어 왔다. 현재 한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성비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즉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이러한 무성선호국 또는 동등선호국을 한국과 비교·연구함으로써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행위모형과 태도모형을 통하여 남아선호국가로 분류되었다.⁵⁾ <표1>에서 보통 남아선호국가로 분류된 나라들 중 어떠한 나라도 행위모형을 통하

여 남아선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표1>에서 동등선호국으로 분류된 하이티와 페루는 행위모형을 통하여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아선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앞으로의 성선택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며, 하이티와 페루에서 내재하는 성선택은 <표1>에서 제시한 동등선호가 아닌 남아선호국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실상, 아시아 대륙 외에서 남아선호의 증거를 보여주는 나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표2>에서 남아선호국 중 한국은 가장 강한 남아선호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성선택국들과 달리, 모든 출산순위에서 남아선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출산순위부터 네 번째 출산순위까지. 두 번째의 출산순위에서, 아들을 가진 응답자는 딸만 가진 응답자보다 낮은 출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두 명의 아들만을 가진 응답자들이 한 명의 아들과 딸을 동시에 가진 부모보다 낮은 출산력을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한 명의 아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로 간주된다. 그러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출산순위에서 딸만 가진 응답자들은 아들을 가진 응답자들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이지만, 아들만 있는 응답자들과 아들 딸 모두가 있는 응답자들과는 유의미한 출산력의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딸의 존재여부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부모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네팔과 하이티는 한국보다는 약한 남아선호사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이들 나라에서는 세 번째 출산순위에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세 명의 딸만 가진 부모들은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을 가진 부모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들만 가진 부모는 아들과 딸을 가진 부모와 유의미한 출산력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표2>에서 모든 남아선호국들은 부모들이 최소한 한 명의 딸을 원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 세네갈, 자마이카는 여아선호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은 <표1>에서 분석되지 않아서 태도모형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성선택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지만, 자마이카는 태도모형과 행위모형 둘 다 여아선호사상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자마이카인의 세 번째 출산순

5) 한국과 네팔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남아선호를 가리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강한 남아선호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타이완, 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해 분석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된다.

위에서, 세 명의 아들만 가진 어머니는 세 명의 딸만 가진 부모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인다. 그러나 세 명의 아들만 가진 부모와 아들과 딸을 가진 부모의 출산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⁶⁾ 자마이카와는 달리,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인들의 세 번째 출산순위에서는 세 명의 아들만이 있는 어머니의 집단이 세 명의 딸만 있는 어머니의 집단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이며, 또 최소한 한 명의 딸이 있는 집단은 아들만 있는 집단보다 낮은 출산력을 보인다. 이 세 여아선호국들은, 세 번째 출산순위에서, 딸이 없는 부모들이 딸이 있는 부모보다 더 높은 출산력을 가진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어떤 성선호 연구도 행위모형에 기반하여 여아선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보여준 바가 없고, 이러한 여아선호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표2〉 각 나라의 출산순위에 따른 생존자식의 성구조에 대한 추정치

변수	출산순위 2	출산순위 3	출산순위 4
가. 아프리카			
(1) 베닌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2 (0.20)	0.14 (0.34)	-0.00 (0.61)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4 (0.18)	0.23 (0.27)	0.22 (0.47)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2 (0.20)	-0.09 (0.25)	0.22 (0.43)
(2) 카메룬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2 (0.31)	0.06 (0.29)	-0.43 (0.53)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42 (0.27)	0.39 (0.23)	-0.37 (0.39)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29 (0.24)	0.45 (0.22)	0.06 (0.39)
(3) 가나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3 (0.16)	-0.20 (0.30)	0.20 (0.59)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5 (0.14)	-0.29 (0.23)	0.22 (0.46)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2 (0.13)	0.09 (0.22)	-0.01 (0.40)
(4) 케냐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6 (0.15)	0.01 (0.23)	0.26 (0.44)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2 (0.13)	0.11 (0.18)	0.06 (0.32)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4 (0.13)	0.09 (0.18)	-0.20 (0.31)

6) 하지만 아들만 있는 응답자들과 최소한 한 명의 딸이 있는 응답자들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한 명의 딸을 가진 어머니 집단이 아들만 가진 어머니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출산력을 보인다(Lee, 1995a).

(5) 레소쑤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8 (0.18)	-0.14 (0.30)	0.43 (0.66)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8 (0.16)	-0.14 (0.25)	0.33 (0.50)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0 (0.15)	0.00 (0.23)	-0.10 (0.47)

(6) 나이지리아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23 (0.13)	0.46 (0.22)	0.30 (0.40)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5 (0.12)	0.11 (0.18)	-0.14 (0.33)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9 (0.11)	-0.47 (0.22)	-0.44 (0.25)

(7) 르완다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2 (0.17)	-0.22 (0.26)	-0.34 (0.44)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6 (0.15)	-0.10 (0.20)	0.15 (0.29)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9 (0.15)	0.13 (0.21)	0.19 (0.35)

(8) 세네갈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2 (0.22)	0.79 (0.41)	-0.14 (0.62)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6 (0.20)	0.09 (0.30)	0.15 (0.48)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9 (0.20)	-0.69 (0.33)	0.28 (0.44)

(9) 수단(북부)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1 (0.20)	-0.35 (0.32)	0.74 (0.60)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9 (0.18)	-0.02 (0.27)	0.53 (0.45)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9 (0.17)	0.34 (0.23)	-0.21 (0.43)

나. 아시아

(10) 피지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2 (0.19)	-0.27 (0.35)	-1.32 (0.91)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7 (0.17)	0.09 (0.29)	-0.35 (0.63)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4 (0.15)	0.36 (0.25)	0.97 (0.69)

(11) 한국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78 (0.15)	-1.25 (0.25)	-1.55 (0.45)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42 (0.14)	-0.95 (0.19)	-1.22 (0.30)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36 (0.12)	0.20 (0.18)	0.34 (0.36)

(12) 네팔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2 (0.14)	-0.39 (0.20)	-0.25 (0.44)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4 (0.13)	-0.43 (0.20)	0.07 (0.31)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6 (0.12)	-0.05 (0.18)	0.32 (0.34)

(13) 파키스탄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5 (0.15)	0.06 (0.28)	0.70 (0.42)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5 (0.17)	-0.45 (0.22)	0.38 (0.31)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0 (0.14)	-0.51 (0.21)	-0.32 (0.30)
(14) 스리랑카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8 (0.14)	0.12 (0.23)	-0.04 (0.45)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6 (0.13)	0.03 (0.18)	0.14 (0.34)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4 (0.12)	-0.08 (0.17)	0.17 (0.33)

다.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

(15) 콜롬비아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24 (0.18)	0.00 (0.35)	-0.37 (0.68)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3 (0.16)	-0.34 (0.28)	-0.28 (0.51)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1 (0.16)	-0.33 (0.25)	0.09 (0.48)

(16) 코스타리카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5 (0.18)	0.34 (0.34)	-0.56 (0.68)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0 (0.16)	-0.08 (0.28)	-0.54 (0.56)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25 (0.16)	-0.43 (0.24)	0.01 (0.44)

(17)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25 (0.23)	-0.29 (0.42)	-0.05 (0.68)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34 (0.19)	-0.46 (0.31)	0.17 (0.49)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0 (0.21)	-0.17 (0.32)	0.22 (0.49)

(18) 에콰도르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6 (0.15)	0.18 (0.25)	-0.54 (0.47)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2 (0.14)	0.29 (0.19)	-0.12 (0.34)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27 (0.13)	0.12 (0.20)	0.41 (0.35)

(19) 하이티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32 (0.22)	-1.42 (0.43)	1.06 (0.86)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25 (0.20)	-0.92 (0.38)	0.50 (0.57)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8 (0.19)	0.51 (0.27)	-0.56 (0.67)

(20) 자마이카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6 (0.22)	0.92 (0.43)	1.58 (1.22)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6 (0.19)	0.54 (0.36)	1.99 (1.13)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22 (0.18)	-0.38 (0.29)	0.46 (0.51)

(21) 멕시코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4 (0.12)	-0.08 (0.23)	0.43 (0.44)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0 (0.14)	-0.15 (0.18)	0.05 (0.33)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4 (0.12)	-0.08 (0.17)	-0.48 (0.32)

(22) 파나마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3 (0.17)	0.42 (0.31)	0.04 (0.57)
--------------	-------------	-------------	-------------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1 (0.16)	0.04 (0.24)	-0.20 (0.47)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2 (0.15)	-0.39 (0.22)	-0.24 (0.36)
(23) 파라과이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5 (0.16)	0.07 (0.36)	-0.51 (0.73)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15 (0.17)	0.02 (0.28)	-0.58 (0.50)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1 (0.19)	-0.06 (0.27)	-0.07 (0.55)
(24) 페루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5 (0.14)	-0.49 (0.23)	0.17 (0.40)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6 (0.12)	-0.38 (0.18)	0.12 (0.27)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02 (0.12)	0.10 (0.17)	-0.05 (0.31)
(25) 트린다드와 토바고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06 (0.18)	-0.23 (0.37)	-0.96 (0.63)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46 (0.16)	-0.26 (0.26)	-0.63 (0.49)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40 (0.15)	-0.02 (0.25)	0.33 (0.43)
(26) 베네수엘라			
모두 아들 대 모두 딸	0.12 (0.18)	-0.44 (0.33)	-0.30 (0.58)
아들과 딸 대 모두 딸	-0.04 (0.17)	-0.49 (0.27)	0.14 (0.44)
아들과 딸 대 모두 아들	-0.17 (0.16)	-0.05 (0.24)	0.45 (0.43)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임.

〈표3〉 행위모형에 의한 각 나라의 성선희 유형

남아선희국	여아선희국	동등선희국	무성선희국
한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피지
네팔	세네갈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하이트	자마이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트린다드와 토바고
			베닌
			카메룬
			가나
			케냐
			레소쑤
			르완다
			수단

6. 맺음말

행위모형에 기반하여, 26개 국의 성선휘가 분석되었다. 비서구국가의 성선휘를 분석한 태도모형의 분석결과와 행위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표1>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도모형과 행위모형의 분석결과들은 성선휘에 대한 다른 유형을 제시한다. 태도모형의 동등선휘는 명확한 개념의 정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동등선휘가 최소한 한 명의 아들과 딸을 원하는 선휘인지 또는 자녀의 성에 관심이 없는 선휘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성선휘는 행위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나타난다. 전자는 다른 의미의 '동등선휘'로, 후자는 '무성선휘'로 정의되었다.

태도모형 분석과 행위모형 분석 모두에서 한국과 네팔은 남아선호국으로, 자마아카는 여아선호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하이티와 페루는 두 분석모형에서 다른 유형의 성선휘를 나타낸다. 행위모형에서 이 두 나라는 남아선호국으로 분류되었지만, 태도모형에서는 동등선휘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선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두 남아메리카 국가를 발견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파키스탄과 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행위모형에 의해 동등선휘국으로 분류되었지만, 태도모형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남아선호국으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동등선휘국으로,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여아선호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비서구 국가들 가운데 2분의 1 이상이 특별한 유형의 성선휘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는 성선휘가 비서구국가의 출산력 저하를 방해하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아마 행위모형으로 여아선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자마이카,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3개 국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어떤 성선휘 연구도 행위모형을 사용하여 여아선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성선휘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성선휘 유형은 미래의 성선휘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과거의 성선휘 연구는 주로 남아선호국에 초점을 맞추어 성차별로 성선휘를 설명해 왔다. 남아선호국들만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성선휘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남아선호국과 여아선

호국을 비교연구하여 (Lee, 1995a) 성선희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질 높은 성선희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귀납적 비교분석이 아닌 연역적 비교분석에 기반한다. 귀납적 비교분석에서 비교할 사회의 선정은 원인변수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데 반하여, 연역적 비교분석에서 비교할 사회의 선정은 결과변수인 성선희 유형에 근거하여 설정해야 한다 (Kiser and Hechter, 1991). 연역적 비교분석을 통한 성선희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성선희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명제를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일반화할 수 있고, 또 인과순서 (causal order) 가 아닌 인과기제 (causal mechanism) 를 분석함으로써 성선희의 존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재적 사회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결값들을 잘못 처리한 통계분석은 어긋난 추정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연구는 암시한다. 태도모형과 행위모형을 사용하여 각 나라의 성선희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생긴 불일치는 성선희에 대해 내재된 사회구조를 태도모형이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더구나, <표1>에서 사용한 통계분석은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결값을 잘못 처리하여 각 나라의 성선희에 대한 어긋난 추정치를 더 문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값들을 나타내는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를 사용한 추출모형 (probit selection model) 이나 조건화 로짓모형 (conditional logit model)⁷⁾을 이용하여 성선희에 대한 태도모형을 만들어 분석한다면, 우리는 결값들을 성선희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계산에서 고려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하게 각 나라의 성선희를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분석한 출산진도비 분석 대신에 위험률모형 (hazard model) 을 사용한다면 오른쪽 관찰시점에서 짚린 응답자들을 고려하여 생존자식의 구성비의 계산은 출산진도비모형보다 덜 어긋난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위

7) 태도모형에서 분석하여야 할 응답 범주의 수는 2개가 아닌 3개이다: '아들', '딸', '잘 모르겠다'. 따라서, 일반 로짓 (logit) 모형이나 프로빗 (probit) 모형으로 분석할 수 없다. 분석할 범주가 3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분석자들은 다정상로짓 (multinomial logit) 모형을 가장 이상적인 통계모형으로 생각하기 쉽다. 다정상로짓모형을 분석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정은 각 카테고리들은 각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카테고리에 대답하는 응답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성선희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선희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높은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아들', '딸', '잘 모르겠다'는 각기 독립적인 응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응답의 비독립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통계분석 모형은 조건화로짓모형이다 (Zhang and Hoffman, 1993).

험률모형 대신에 헤크만과 와커(Heckman and Walker, 1992)가 제시한 다단계기간 모형(multi-state-duration model)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위험률모형에서 분석할 수 없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들간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변수(person-specific unobserved heterogeneity)와 개인 생애에 대한 역사 등을 통계분석에서 고려하여, 분석할 표본을 최소한 두 명의 자식을 가진 응답자들이 아닌, 조사 당시 자녀가 없거나 또는 한 명의 자녀만이 있는 집단까지 포함한 표본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다(Lee, 1995a). 이상과 같이 좀더 발달된 고급통계모형을 사용하여 각 나라의 성선호를 측정한다면, <표1>과 <표3>에서 보여주는 불일치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현·최봉호·이삼식(1990), “남아선호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 《보건사회논집》 10(1): 56-82.
- 김태현(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Arnold, Fred(1985), “Measuring the Effect of Sex Preference on Fertility: The Case of Korea”, *Demography* 22(2): 280-288.
- _____ and Liu Zhaoxiang(1986), “Sex Preference and Fertility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2): 221-246.
- _____ and Eddie C.Y. Kuo. (1984), “The Value of Daughters and Sons: A Comparative Study of Gender Preferences of Pare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2): 299-318.
- Ben-Porath, Y. and F. Welch(1976), “Do Sex Preferences Really Matte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285-307.
- Cain, Mead(1981), “Risk and Insurance: Perspectives on Fertility and Agrarian Change in India and Banglades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7: 435-474.
- _____ (1984), “Women’s Status and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Son Preference and Economic Security”,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682.
- _____ (1993), “Patriarchal Structure and Demographic Change”, pp. 43-60 in *Women’s Position and Demographic Change*, edited by N. Federici, K. O. Mason and S. SoGner, Oxford: Clarendon Press.
- Cleland, John, Jane Verrall and Martin Vaessen(1983), “Preferences for the Sex of Children and Their Influence on Reproductive Behavior”, *World Fertility Survey Comparative Studies: Cross-National Summaries* 27, Voorburg: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Coale A. J. and J. Banister(1994), “Five Decades of Missing Females in China”, *Demography* 31: 459-479.
- Coleman, J.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mbs, C. H., L. C. Coombs and G. M. McClelland(1975), “Preference Scales for

- Numbers and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29: 275-298.
- Coombs, L. C. (1979), “Prospective Fertility and Underlying Preference: A Longitudinal Study in Taiwan”, *Population Studies* 33: 447-456.
- _____ and Te-Hsiung Sun(1978), “Family Composition Preferences in a Developing Culture: The Case of Taiwan 1973”, *Population Studies* 32: 43-64.
- Cronk, Lee(1991), “Intention Versus Behavior in Parental Sex Preferences among the Mukogodo of Kenya”,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3: 229-240.
- Das, N. (1987), “Sex Preference and Fertility Behavior: A Study of Recent Indian Data”, *Demography* 24: 517-530.
- Das Gupta, M. (1987), “Selective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Children in Rural Punjab, Ind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77-100.
- De Tray, D. (1984), “Son Preference in Pakistan: An Analysis of Intentions versus Behavior”,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5: 185-200.
- De Souza, S. and L. C. Chen(1980),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in Rural Banglades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6: 257-270.
- Freedman, Ronald(1979),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A Reappraisal”, *Social Forces* 58(1): 1-17.
- Friedman, D., M. Hechter and S. Kanazawa(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 375-401.
- Goody, Jack(1976),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Domestic Doma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ckman, J. and J. Walker(1992), “Understanding Third Birth in Sweden”, pp.157-208 in *Demographic Applications of Event History Analysis*, edited by J. Trussell, R. Hankinson and J. Tilton, Oxford: Clarendon Press.
- Kiser, E. and M. Hechter(1991), “The Role of General Theory in Comparative-historic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30.
- Langford, C. and P. Storey(1993), “Sex Differential in Mortality Early in the Twentieth Countries: Sri Lanka and India Compare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263-282.
- Lee, Sung Yong(1993), “Sex Preference, the Value of Sons and Fertility: The Case of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 in Maimi.
- _____ (1995a), “The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Sex Preference: A

-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maic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 _____ (1995b), “The Types of Sex Preferences in Fifteen Non-Western Countries: Based on Behavioral Models”, Unpublished Manuscript,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 in Washington, DC, 1995.
- Leung, Siu Fai (1988), “On tests for sex preferenc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 95-114.
- Mason, K. O. (1993), “The Impact of Women’s Position on Demographic Change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in *Women’s Position and Demographic Change*, edited by N. Federici, K. O. Mason and S. SoGner, Oxford: Clarendon Press, pp. 19-42.
- McClelland, Gary H. (1979), “Determining the Impact of Sex Preference on Fertility”, *Demography* 16: 377-388.
- _____ (1983), “Measuring Sex Preference and Their Effects on Fertility”, in *Sex Selection of Children*, edited by Neil Bennett, New York: Academic Press, pp. 13-45.
- Miller, B. D. (1981), *The Endangered Sex: Neglect of Female Children in Rural North Ind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Nag, Moni (1991), “Sex Preference in Bangladesh, India, and Pakistan, and Its Effect on Fertility”, Working Papers No. 27. New York: The Population Council.
- Nugent, J. B. (1985), “The Old-Age Security Motive for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 75-97.
- Park, C. B. (1978), “The Fourth Korean Child: The Effect of Son Preference on Subsequent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0: 95-106.
- _____ (1983), “Preference for Sons, Family Size, and Sex Ratio: An Empirical Study of Korea”, *Demography* 20(3): 333-352.
- Park, C. B. and Nam-Hoon Cho (1995), “Consequencies of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 59-84.
- Pong (1994), “Sex Preference and Ferility in Peninsular Malaysia”, *Studies in Family Planning* 25(3): 137-148.
- Rahman M. and J. Da Vanzo (1993), “Gender Preference and Birth Spacing in Matlab,

- Bangladesh”, *Demography* 30(3) : 315-332.
- Repetto, R. C. (1972), “Son Preference and Fertility Behavior in Developing Countr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70: 70-76.
- Rindfuss, R., J. Palmore and L. L. Bumpass(1982), “Selectivity and the Analysis of Birth Intervals from Survey Data”, *Asian and Pasific Census Forum* 8: 5-10, 15.
- Schuman, H. And S. Presser(1981), *Questions and Answers in Attitude Survey*,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Westoff, C. and N. Ryder(1977),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14: 431-454.
- Williamson, N. E. (1976), *Sons or Daughters*, Ber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Zeng, Y., P. Tu, B. Gu, Y. Xu, B. Li and Y. Li(1993),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Increase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283-302.
- Zhang, J. and S. D. Hoffman(1993), “Discrete-Choice Logit Models: Testing the IIA property”, *Sociological Method and Research* 22: 193-213.

abstract

**The Types of Gender Preference in the Twenty Six
Non-Western Countries: Based on Behavioral Model**

Sung-Yong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several different types of sex preference have existed in non-Western countries (Africa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d Asian countries), through the analyses of 26 countries' World Fertility Survey data. Attitudinal measures are more likely to measure individual sex preference, rather than the underlying structure of sex preference. In non-Western societies, especially where familism exists, sex preference may be determined in the context of family and kinship systems, rather than at the individual levels. If sex preference in each country is analyzed by behavioral measures such as parity progression ratio tests, then the underlying structure of sex preference in each country can be easily examined.

Based on parity progression ratio tests, sex preferences in 26 non-Western countries were examined and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son preference, daughter preference, equal preference and no preference countries. Equal preference refers to the preference that parents have at least both one son and one daughter, and no preference means that parents have no preference concerning the sex of the next child. These four categories are different from the four categories obtained from the attitudinal measures. The results from the behavioral measures are largely inconsistent with those from the attitudinal measures. Nevertheless, Jamaica is regarded as a daughter preference country and Korea and Nepal as son preference countries in both behavioral and attitudinal measures.

